

고아성 “늘 정반대의 내 모습을 상상한다”

영화 ‘오피스’로 돌아온 고아성

연쇄살인 일어난 회사 인턴사원 역 ‘풍문’ 며느리 역과 전혀 다른 캐릭터 “청개구리 기질... 새로운 시도에 끌려”

“제게는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요.” 배우 고아성(23)은 자유롭게 변화하는 자신의 연기 방식을 이렇게 설명했다. “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며 “영화 한 편을 끝내면 정확히 그 반대의 내 모습을 상상하며 그 쪽으로 달려간다”고 했다.

최근 출연한 SBS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의 톱 부러지는 며느리의 이미지가 채 가지지 전, 영화 ‘오피스’(감독 홍원찬·제작 영화사꽃)를 통해 전혀 다른 모습을 관객 앞에 내놓기까지도 이 같은 ‘청개구리’의 성격이 작용했다.

“돌아보면 항상 독특한 걸 찾으려고 했다. ‘오피스’는 재미있는 소설 한 편을 똑딱 읽은 기분이었다. 드라마 ‘미생’이 지옥 같은 현실을 끈끈한 동료애로 버티는 내용이라면 ‘오피스’는 일하고 싶은 내 마음을, 동료들이 도와주지 않는 이야기다.”

3일 개봉하는 ‘오피스’는 한 음료회사 영업부에서 벌어지는 연쇄살인사건을 그렸다. 부장부터 과장, 대리, 사원에 이르는 관계가 마치 먹이사슬처럼 연결된 좁은 사무실에서 고아성은 맨 끝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인턴사원이다. 누구보다 잘 하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만 정규직 전환은 요원한 처지. 고아성은 극중 인물과 실제 자신의 모습이 흡사하다고 했다. “자의식은 높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바로 나”라고 했다.

“열심히 하지 않아도 모두 잘 하길 바라는 게 요즘 사회의 인식 같다. 그걸 쿨하게 여기는 시대다. 내가 느끼는 사회도 비슷하다. 하루 종일 열심히 연기하고 너털너털해진 상태로 숙소로 돌아온 어느 날 밤, 나 역시 열심히 하는 것밖에 다른 무기가 없다는 걸

알았다.”

영화에서 그는 말 디딤 틈 없는 ‘지옥철’을 타고 출근해, 때때로 밤새 일한다. 커피 심부름도 그의 몫이다. 직장생활의 경험은 전혀 없는 사람으로, 고아성은 지극히 현실적인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풀어냈을까.

“한 살 많은 내 언니가 회사에 다니고 있다. 자주 밤새 얘기한다. 실제로 인턴 경험도 했던 언니를 옆에서 보며 여러 감정을 배우고 느꼈다.”

누구와도 깊이 대화하길 즐기는 그는 특히 “포스 있는 언니들”과 친분이 상당하다. 그 교류의 마당에서는 나이와 국적을 넘나든다. 요즘 “사귀는 연인 관계 아니냐”는 말까지 듣는 상대는 류현경이다. ‘오피스’ 촬영에서 처음 만나 이제는 “함께 탁구치고, 영어 스터디 같이 하는 친한 친구”가 됐다. 드라마를 함께 했던 액터 출신 백지연과도 친분이 깊다.

“개인적인 성향이다. 내가 인식했던 이미지를 깨버리는 사람에게 나는 완전히 반한다. 백지연 선배도 그렇다.”

그의 곁에는 “극소수의 냉정한 비평가들”도 존재한다. 가깝게는 “영화 마니아인 엄마”부터 멀게는 “영국배우 틸다 스윈튼 언니”까지다. 특히 ‘설국열차’에서 함께한 틸다 스윈튼과는 영화 출연 여부를 상의할 정도로 신뢰를 나누는 사이가 됐다.

“초등학교 때 안방을 기웃거리면서 엄마가 비디오로 영화를 함께 본 기억이 또렷하다. ‘프란시스’의 개와 ‘살인의 추억’ 같은 영화였다. ‘괴물’의 오디션에 합격했을 때, 자신 없어 못하겠다는 나에게 엄마가 ‘꼭 한 번만 출연해 달라’고 부탁하던 기억도 난다. 하하!”

현재 임시완과 영화 ‘오펜생각’을 촬영하고 있는 고아성은 9월 말에는 미국 LA로 건너가 할리우드 활동 여부도 타진해볼 생각이다. 지난해 미국의 언타이틀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은 그는 “더 넓은 시장”으로 나설 준비를 마쳤다.

이해리 기자 god11024@donga.com



배우 고아성은 늘 변화를 꿈꾼다. “열심히 하는 것 밖에 다른 무기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도전을 즐기고 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스타, 그때 이런 일이

(1998년 9월 1일)

‘보고 또 보고’ 시청률 56% 돌파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이 화제를 모으긴 하지만 시청률 상위권을 단연 드라마 차지다. 가장 최근

인 8월24일부터 30일까지 주간 시청률(닐슨코리아) 10위권에도 무려 7편의 드라마가 순위를 꿰찼다. 그 1위는 KBS 1TV 일일극 ‘가족을 지켜라’. KBS 1TV 일일극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오랜 시간, ‘전통적’으로 시청률 순위를 장악하며 사랑받아왔다.

하지만 1990년대 말, 이 같은 인기 행진에 큰 걸림돌이 나타났다. MBC 일일극 ‘보고 또 보고’(사진)다. 1998년 오늘, ‘보고 또 보고’가 56.1%로 일일극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그해 3월2일 첫 방송한 드라마는 이후 10월2일 57.3%의 시청률로 또 한 번 기록을 다시 썼다.

‘보고 또 보고’는 김지수와 정보석, 허준호와 윤해영을 주연으로 이순재, 김민자, 김창숙, 정옥, 장용, 사미자, 김자옥, 박윤숙, 박용하 등 각 세대 연기자들이 총출동한 드라마. 1999년 4월2일 273회를 끝으로 막을 내리기까지 평균 시청률 44.6%로 큰 인기를 모았다. 특히 방송 초기 KBS 1TV 일일극 ‘살다보면’을 제치며 5년 만에 MBC 일일극의 부활을 알렸다. 1993년 ‘당신이 그리워질 때’ 바람은 불어도 ‘사랑할 때까지’ ‘정 때문에’로 이어진 KBS 1TV 일일극의 체면은 구겨졌다. 이로 인해 6월에는 메인뉴스인 KBS 1TV ‘9시뉴스’가 MBC ‘뉴스데스크’에게 4년 만에 1위 자리를 내주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보고 또 보고’는 ‘막장의 대명사’로 불리는 임성한 작가의 출세작으로 더욱 유명하다. 1998년 9월 5자 동아일보는 임 작가와 인터뷰를 통해 1997년 MBC ‘베스트극장’ 등 4편의 단막극을 집필한 그가 “7년간 초등학교 컴퓨터 관련 강사로 일했고, 경기 안양시 평촌에 살며 200자 원고지 300장 분량의 일주일치 원고를 이매일로 보낸다”고 썼다. 또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온통 집필에만 몰두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열정이 빛어낸 드라마는 그러나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두 집안의 형제와 자매가 각각 사랑의 연을 맺어 ‘겹사돈’을 이루가는 내용을 다뤘기 때문이다. 여기에 친구 남동생과 엮여가는 사랑의 이야기도 억지스럽고 극단적인 설정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결국 1998년 말 방송담당 기자들이 뽑은 최악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며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라는 말을 실감케 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빅 마우스

●“강한 캐릭터 때문에 ‘센’ 이미지로 고정된 것 같다”(연기자 장서희) 8월31일 MBC 주말드라마 ‘엄마’ 제작발표회에서 “이제는 잔잔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다”며.

편집 | 고정일 기자 ico@donga.com

‘은사’ 임성구 감독 새 영화 응원...산다라박의 보은

신작 다큐 ‘기적의 피아노’ 시사회 참석 주인공 유예은양에 고급 헤드폰 선물도

그들 투애니원의 산다라박이 우정과 보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어 화제다.

산다라박은 3일 개봉을 앞둔 다큐멘터리영화 ‘기적의 피아노’(제작 보고싶은 영화사)의 감독과 맺은 인연을 영화의 주인공에게 대신

보은하며 특별한 선물을 선사했다. 산다라박은 최근 열린 ‘기적의 피아노’ 시사회에 참석해 주인공 유예은(13)양에게 고급 헤드폰을 선물했다.

‘기적의 피아노’는 선천적 시각장애인으로, 단 한 번도 수업을 받아본 적 없는 피아노 연주에 천재적 소질을 발휘한 유예은양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연출자는 임성구 감독이다.

임 감독은 2004년 KBS 1TV ‘인간극장’의 ‘내 이름은 산다라박’을 통해 산다라박을 국내에 소개한 주인공. 산다라박은 바로 이 같은 인연을 임 감독이 연출한 다큐멘터리영화의 주인공으로, 청각이 예민한 유예은양에게 헤드폰을 선물하는 것으로 보은한 셈이다. 산다라박은 투애니원의 멤버로 데뷔한 이후에도 임 감독과 서로를 응원해왔다.

산다라박은 영화를 관람한 뒤 “행복해지고 희망적인 영화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예은이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해리 기자



산다라박(왼쪽)이 최근 다큐멘터리영화 ‘기적의 피아노’ 주인공 유예은 양에게 헤드폰을 선물하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사진제공 | 보고싶은 영화사

안녕하세요, 텔런트 김형일입니다.
남성이 당당해지고, 부부가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바뀐다면?
“뉴맨”이 확실한 패트를 드립니다.
강한남자! “뉴맨!”입니다.

왜소하다! 빠르다! 힘이 약하다! 중간에 시든다?

수술없이 강한남자 뉴맨!!

사용당일 나타나는 막강 파워!

1. 힘이 약하다 ➡ 본인도 놀라는 막강 파워!
2. 잘 시든다 ➡ 끝까지 강력하게!
3. 작고 빠르다 ➡ 20~30% 더 커져서 오래도록!
4. 확대시술 후 약화된 강직도 ➡ 강하고 단단하게!

세상에 없는 반품제도! 효능의 자신감입니다.

출시10년! 반품을 4%대! 세상에 없는 반품제도를 만들게 된 원동력과 자신감입니다.

상당원과 통화가 필요없는 반품 시스템

15일간 사용해보고 반품을 원하시면 반품(택배비 고객부담) 메모와 계좌번호, ‘뉴맨’을 보내주시면 도착 다음날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구매보다 반품이 더 간단한 세상! ‘뉴맨’이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뉴맨’의 광고를 접하면서 이런 작은 반지가? 에이 설마? 하는 의심이나 불신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유수의 스포츠신문(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 스포츠동아)에 꾸준히 광고하고 있다면 그리고 구매보다 더 간단한 반품제도라면 신뢰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D&M NAVER에서 **뉴맨**을 검색하세요 ※ 뉴맨홈페이지에 2,000건 이상의 사용후기가 있습니다.

평상시 사이즈	뉴맨 호수
6.50이하	주문 제작
6.5cm	1호
6.8cm	2호
7.1cm	3호
7.4cm	4호
7.7cm	5호
8cm	6호
8.3cm	7호
8.6cm	8호
8.9cm	9호
9.2cm	10호
9.5cm	11호
9.8cm	12호
10.1cm	13호
10.4cm	14호
10.7cm	15호
11cm	16호
11.3cm	17호
11.6cm	18호
11.9cm	19호
12.2cm	20호
12.5cm	21호
12.8cm	22호
13.1cm	23호
13.4cm	24호
13.7이상	주문 제작

· 중국지사 T. 0433-286-5031 · 일본동경지사 T. 03-6233-8994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15일 사용후 효과 없을시 100% 반품 · 환불 **T.1588-3346, 010-8020-3346** 서울시 서초구 바우빌로9길 20 (우면동) (주)케이앤제이스포츠 통신판매 허가 서초 0701호